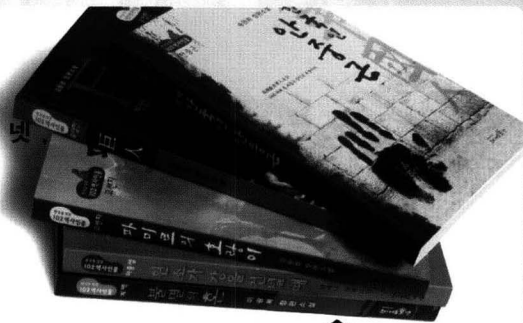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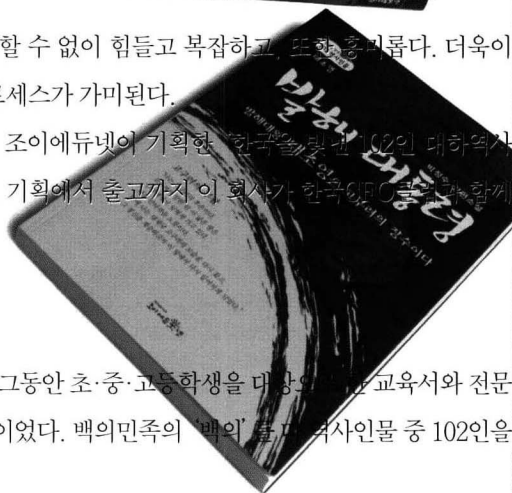
책 한 권의 탄생일지

한국CFO클럽·벤처기업 조이에듀넷
《발해 대통령》내기까지



한 권의 책이 서점에 깔리기까진 간단하지 않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복잡하고 또한 흥미롭다. 더욱이 기업이 출판을 지원하고 기획한 경우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가미된다.

박정수의 《발해 대통령》은 벤처기업 조이에듀넷이 기획한 '한국출판권102인 대하역사 소설 전집'의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출간된 도서다. 기획에서 출고까지 이 회사가 한국CFO클럽과 함께 손잡고 일군 북펀드형 출판의 개가다.



● 기획

● 한 권의 책을 구상하다

2년 전, 조이에듀넷의 편집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2인 교욱서와 전문 서적을 출판했지만 이번에는 기획이 사뭇 색다른 것이었다. 백의민족의 '백의'를 대표 역사인물 중 102인을 선정해 소설을 낸다는 취지다.

역사문제는 반드시 다루어 볼 만한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욱이 대부분의 역사 서적이 역사인물 위주의 업적과 전기에 치우쳤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편중되지 않게 102인을 선정하는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받았다. 독자층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겨냥, 흥미와 감동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설 형태를 택했다.

102권이라는 방대한 규모는 그러나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다행히 한국CFO클럽 '북펀드' 투자업체로 이 회사가 선정돼 투자개념의 지원을 받아 작업이 개시됐다.

● 작가 섭외

● '첫단추를 잘 끼워야'

102명의 작가는 한국소설가협회와 문학평론가협회의 도움을 받았다. 역사서를 한 권이라도 낸 적이 있고 해당 인물에 대해 충분한 사료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에 한했다. 독자들의 인지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작가들의 이력을 보고 섭외하기도 했지만, 위인들의 명단을 보고 '소설을 쓰겠다'는 작가들의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대조영을 다룬 《발해 대통령》의 작가 박정수 씨는 전자에 속한다.

그는 10년 전 일본출판사를 시찰한 것이 계기가 되어 7년 동안 대조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왔다. 그에게 대조영은 유림출판사 《대조영》 이후 두 번째다. 조이에듀넷은 《살아있는 땅》을 비롯, 《삼국지》 등 마흔 권이 넘는 역사서를 낸 박정수 작가와 계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원고를 부탁했다.

● 원고 수발·검토

● 인물과 원고, 둘 다 살리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받기 시작했다. 편집팀이 분주해졌다. 각 인물의 성격과 업적에 맞게 내용이 전개됐는지, 문장에 비해 인물이 죽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혹, 두 영역이 상충되면 작가에게 미리 준 계약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반려한다. 본문 중의 한자와 고유어를 추리는 작업도 진행된다.

● 내지·표지 작업

● 신중, 그리고 또 신중

원고작업이 끝나면 출판사 자체적으로 소설이 출간되는 순서를 정한다. 상업적 기대치와 사회적 가치·시류가 함께 기준이 된다. 대조영을 다룬 《발해 대통령》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관련해 출고시기를 정했

다.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각 쪽에 뜻풀이 난을 마련해 추린 용어의 주註를 달았다. 표지는 독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했다. 출판사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나, 이번엔 김천정·박홍순 화백을 섭외해 반씩 나눠 작업을 부탁했다. 표지자료를 받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받은 그 자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인물 성격에 맞는 그림을 열 가지 내외로 받아 고르는 경우도 있다.

《발해 대통령》의 표지는 박홍순 화백이 맡았다. 녹색부분은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발해의 기상을, 노란 원은 그것이 더 크게 뻗어나가는 의미를 담았다. 제목도 박홍순 화백의 서체로 결정됐다.

● 한 권의 책

● 모양을 갖추다

원고와 표지작업이 완성된 후 그 둘을 함께 인쇄소에 넘겼다. 보통 소설과 달리 2도 인쇄로 결정했다. 초판으로 기본 3,000부를 찍어내기로 했다.

출간된 책이 마침내 서점으로 보내졌다. 중대형 서점은 기본적으로 30~50부 정도를 보내고 추가 주문에 따라 더 보낼 계획이다.

● 출간 그 이후

● 계속되는 기획과 지원

주문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기본 3,000부 정도로 2쇄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재고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전에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한다. 초판으로 찍어낸 것은 어떻게든 팔리도록 한다. 앞으로 《발해대통령》에 이어 2006년까지 한 달에 3권씩 기획도서를 출고할 예정이다. 전체 기획도서 102권이 완성되면 전집으로 다시 발행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각 소설 인물이 게임, 영화, 드라마, 학습만화 등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소설 형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자들이 재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와 접목시킬 방침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일본 등지와 관련된 내용의 소설은 수출도 하기로 했다. 《발해 대통령》은 드라마화를 추진중이다.

● 에필로그

한 권의 책이 나온 후에도 편집팀은 여전히 분주하다. 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책의 '관리'도 원고를 검토할 때처럼 철저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많이 팔릴 것인가 때문만은 아니다. 수익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 투자단계인 도서가 언제 어떤 계기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반응은 어떻게 항상 고민한다. 당장의 잇속보단 좋은 명분으로 다가간다면 더 큰 실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적**

취재 | 홍이현 기자

Interview



《발해 대통령》 저자 박정수

10년 전, 그는 일본의 한 출판사 사장에게 민망한 소릴 들은 적이 있다. 발해에 관한 책을 낼 예정인 그의 집무실에 있는 자료를 보고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자문을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화를 냈다. 고구려의 후손이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한국에서 모

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발해에 대한 자료를 찾았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어느 곳도 일본자료 이상의 것이 없었다.

“대조영을 다루기는 사실상 두 번뿐이다. 완결된 작업으로 《발해 대통령》을 쓰게 됐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료조사였지요.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이 고구려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꺼려하며 막기도 했으니깐요. 중국역사서 《25사》에도 한국 고대사에 관한 많은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미 《삼국지》(전8권·청복사)를 냈을 때 그는 대조영에 주목했다. 패기 넘치

고 날렵한 조자룡과 비슷한 인물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던 탓이다. 중국에서 《25사》를 공부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발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기간이 7년이다.

그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분개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을 만큼 고구려 지키기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런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인식이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천년 역사를 지켜내는 힘이 될진대 이러한 현실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강역과 맥을 이어온 국가다. 수·당의 침략에도 자신들의 영역을 최후까지 지켰다. 그는 고구려사가 이대로 중국에 편입된다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뺏긴 민족이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민족의 특이성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풍수에 관한 책 《살아있는 땅》의 집필을 위해 풍수지리학자와 3년간 우리 땅을 밟으며 다닌 것을 계기로 그는 역사인물

에 관심을 갖게됐다. 현재 그는, 임진왜란과 5·16군사정변을 예언해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인물, 남사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준비중이다.

사진 | 박신우 기자